

#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은희경의 <빈처> 연구\*

명 형 대\*\*

##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상징 질서(규율規律)와 동요(動搖) |
| II. 텍스트의 혼성(混成/混性)적<br>말하기 구조 | 1. 상징적 규율의 남성 세계         |
| 1. 담론의 소통 구조                  | 2. 상징 질서의 변화와 반성         |
| 2. 우회적 소통과 그 의미               | IV. 소통과 포월(包越)의 사랑       |
|                               | V. 마무리                   |

## 국문초록

<빈처>는 텍스트의 총 서술자인 남편인 ‘그’가 아내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빈처>는 액자의 틀을 이루는 남성 담론과 내부 이야기로서의 일기, 즉 여성 담론이 서로가 주체가 되어 교호적 구조를 이루면서 형식과 주체가 어우러 있다.

그가 그녀의 일기를 훑쳐 읽는 것은 그녀가 그를 바라본 낯설게 된 그 자신을 바라보는 주체(그)와, 낯설게 되어 진 자신을 스스로가 타자로

\*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응시하는 두 개의 시선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일기’는 그로 하여금 규율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기’의, 즉 그녀의 부름에 응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스스로가 그들의 삶에서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빈처>의 남성 담론에서 그는 그녀에 대하여 두 가지의 사유를 보인다. 첫째, 일상에서 겪는 그녀와의 일상적 삶에 대한 것과, 둘째, 일기를 보면서 일기 속의 그녀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으로서의 사유이다. 반면에, 여성담론은 첫째, 그와의 조응이 직접적인 발화(‘말’)에 의한 대화가 아니라 ‘글’을 통한 간접적인 대화, 즉 일기의 물리적 공간화로써 일기 ‘놓아두기’를 통하여 그와의 우회적인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들의 보편화된 존재 세계를 뒤흔들어 무한으로 이끈다. 이러한 동요, 충격은 일상의 너머에 있는 삶의 진정성을 찾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전에 없이 타자에 대한 동정과 배려와 반성적 시각으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것은 결과로서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탈출(탈주)로서의 ‘-되기’인 바, 끊임없이 모색해가는 그 자체로서의 여성성의 세계 지향을 의미한다.

주제어 : 남성 담론, 여성 담론, 응시, 페미니즘, 빈처, 은희경

## I. 들머리

은희경의 소설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여성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두 가지 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담론과 억압적 상징 질서의 부조리한 현실을 냉소와 위악으로 들어내어 보이는 것이고, 그 둘째가 상징계에서 수행되는 부조리한 상징 질서의 여성적 현실을 새로운 상징계적 현실로 ‘되게’하는 것이다. 여기서 <빈처>

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빈처>가 여성 정체성의 새로운 담론으로서 페미니즘 소설이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은희경의 <빈처>(1992)<sup>1)</sup>는 ‘냉소’, ‘위악’, ‘위반’을 글쓰기의 전략으로 하는 다른 소설들<sup>2)</sup>과 달리 여성의 현실을 새롭게 쓰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글쓰기 전략의 지배적 경향과는 달리 현실을 부정하고 이를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할 페미니즘의 이상을 정면으로 모색, 추구하고 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은희경의 <빈처>는 1920년대 현진건의 <빈처>와 다른 시공간에서의, 다른 결핍과 욕망을 패러디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부부로서의 이상적 사랑을 욕망하는 액자(frame) 형식의 이야기이다. 남성 담론은 여성 담론, 곧 일기의 틀이 되면서, 이중으로 아내와 대면한 채로 서술된다.<sup>3)</sup> 이와는 다르게 여성 담론은 남편과의 일상을 ‘일기’로써 서술하여 남성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작용한다. 이처럼 <빈처>는 두 개의 서로

1) 1992년에 발표된 은희경의 <빈처>는 《타인에게 말걸기》, 서울 : 문학동네, 1996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계열의 <명>은 1993년에 발표되어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에 수록되어 있다.

2) 은희경 소설의 개괄적인 방향을 방민호, 김은하 등이 들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범주로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그녀의 세 번째 남자>, <서정시대> 등 대부분의 작품과 두 번째 범주로 <빈처>, 『명』을 들 수 있다.

이선옥·김은하,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 『민족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59쪽에서 은희경 문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소통의 우회적 전략이 오히려 글쓰기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 없다.

방민호, 『가족이 지배하는 세계의 '농담'과 연민』,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창비, 1999, 295쪽 해설 참고.

김은하, 『90년대 여성소설의 세 가지 유형』, 『창작과비평』 제27권 제4호(통권 106호), 창비, 1999, 255쪽

3) <빈처>의 1인칭주인물 ‘나’(남편)는 아내의 일기를 몰래 읽음으로써 ‘내부 이야기’인 일기 속의 그녀(서술 주체인 ‘나’, 곧 아내)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일기가 아닌 틀에서는 현실(허구적 현실)에 있는 그녀(기억, 회상을 통한 아내)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다.

다른 성격의 담론이 하나로 뒤엉킨 우로보스의 양성적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남성 담론인 액자의 틀은 틀대로, 여성 담론인 일기는 일기대로 서로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그 각각이 서로가 주체 ‘나’이고 대상적 존재로서의 ‘그’(‘그이’)/‘그녀’가 된다. 게다가 ‘일기 훑쳐보기’는 소통에의 강력한 유혹이자 떨칠 수 없는 힘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의 실천은 양성이 이처럼 다양하게 혼재하는 형식과 주체의 조화로서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시작과 결말이 남성 담론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남성 담론의 패러다임을 쫓는다. 근대성을 담보하는 언어가 현실 상징이듯이 근대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설은 일상의 질서와 규례화된 상징 질서를 따르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디에게시스’이다. 내부 이야기로서의 ‘일기’는 남성적 말하기의 세계에서 밀려난 “소수자의 글쓰기 양식”<sup>4)</sup>으로서, 근원적으로 여성 주체의 글쓰기이다. 일기는 주체의 타자화한 것이며 자기 응시이다. 따라서 일기의 화자인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보는 나’에서 ‘보이는 나’의 입장으로 거리를 두어 반성하는 입장이 된다. 이것이 곧 자신의 자아를 지어서 보이게 하는 연극적 방법<sup>5)</sup>된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담론에서 그녀의 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형식의 왜곡과 우회적 탐구의 과정적 의미를 발생시킨다. ‘일기’는 내적 욕망을 향한 충동과 타인과의 정서적 근접, 대면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움직인다.<sup>6)</sup> <빈처>가 말하는 그녀의 결핍은 가

4) 들뢰즈·가타리,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카프카론』(조한경 역),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2, 61쪽. 편지를 소수집단의 장르라 지적하고 있다. 일기도 문학 양식으로는 규방 문학처럼 그 기능이나 쓰임에서 주류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것이라 볼 수 있다.

5) 황종연, 『나르시즘과 사랑의 탈낭만화』, 《타인에게 말걸기》, 서울 : 문학동네, 1996, 341, 338-341쪽

6)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박혜영 역), 서울 : 동문선, 2004, 114쪽  
황종연, 『나르시즘과 사랑의 탈 낭만화』, 《타인에게 말 걸기》, 문학동네, 1996, 341쪽 해설 참고.

죽 구성체로서의 ‘남편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그녀는 일기를 통하여 우회적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과 내면의 갈등, 투쟁을 남편이 인지케 하여 성찰과 자기반성의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이것은 기존의 억압적 남성 담론을 벗어나는 것이다.

일기는 그 속에 쓰인 자신을 응시케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분열케 하고 또 그의 변화를 초래케 한다. 일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빈처>의 남성 담론은 상징계적 질서를 회상, 과거, 기존의 것에 대한 유지와 동시에 동요되는, 동요되기 시작하는 갈등이 현재화하는 장이 되게 한다. 따라서 남성 담론은 관습화된 지배와 폭력으로 언어화된 상징 질서의 세계와 그것의 충격적인 교란과 동요가 노정(露呈)된다. 상대적으로 여성 담론은 우회적 대화와 여백의 침묵<sup>7)</sup>으로 타자와의 상호 주체적인 입장을 이끌어 낸다. 그리하여 <빈처>는 주변부로부터의 귀환이며, 여성성이 지향하는 상호 교호적 변증적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는 대화성, 서사 구조의 혼성, 다성성과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서 왜곡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여성 담론이 어떻게 남성 담론과 교호하면서 현실을 초극하고, 이상적인 페미니즘에 이르게 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탐구를 일단 남성 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sup>8)</sup> 연구 대상 텍스트는 은희경 소설의 예외성을 염두에 두어 <빈처> 한 편만을 미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7) 소설의 결말에서 그녀가 펼쳐놓은 마지막 날짜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일기가 써지지 않은 채 백지 상태로 펼쳐져 있다.

8) 남성 담론과 여성 담론이 교호적 관계에서 여성 담론(일기)은 그이에 대한 감성적 사유가 서술의 핵이 되며, 남성 담론은 다시 그 일기가 그의 감성적 사유의 중심이 된다. 교호적 관계의 끝없는 되풀이가 곧 상호성이 된다. 본고는 기술상 두 개의 담론을 변증적 관계에서 다루되, 궁극적으로 남성 담론의 변화를 귀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성 담론은 고(稿)를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텍스트의 혼성(混成/混性)적 말하기 구조

### 1. 담론의 소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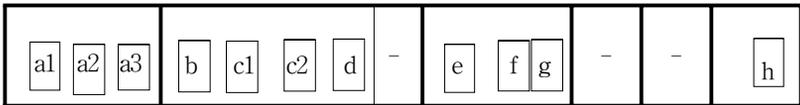
<빈처>의 패러다임은 어떠한가. 일기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는 주체 ‘나’의 서술이 서사 전개의 중심인가? 반대로 일기의 서술 주체인 ‘나’에 종속(從屬)되는 것인가? <빈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체의 서로 다른 담론이 교호적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날	둘째 날 새벽	둘째 초저녁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침)	다섯째 날 (밤)
•6월 17일 a1 •6월 17일 a2 •6월 17일 a3	•9월 4일 b •8월 25일 c1, b2 •8월 29일 d	-	•9월 16일 e •4월 7일 f •5월 27일 g	-	-	•9월 말 전일 h
•그날 * 9월 15일	•다음 날 새벽 * 9월 16일	•초저녁 * 9월 16일	•사흘 나흘 후 새벽 * 9월 20일	* 다음날 * 9월 21일	* 그 뒤로 며칠 동안 * 9월 말경	•그날 밤 •9월 말경

소통의 관점에서 <빈처>는 ‘일기’라는 자기 성찰을 내용으로 하는 잠재적이면서도 의도적인, 청자가 분명한 고백적 서술 양식<sup>9)</sup>의 여성 담론 B와, 보편적 독자로서의 청증을 향한 독백적 서술 양식의 남성 담론 A로 얽혀 있다.<sup>10)</sup> ‘일기’는 틀(A)에서 ‘그’<sup>11)</sup>가 전개하는 이야기의 ‘핵’이

9) 박현이,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고백의 서술전략 연구』, 『비평문학』, 비평문학회, 2004, 174쪽 참고

10) 아래 표는 일기의 분절을 나타낸다. 본문의 표를 함께 보면 틀에 예속화된 것이 아닌 교호 관계를 알 수 있다.



\* 밖의 사각형(틀)은 서술 주체 ‘나’에 의해서 기술된 남성 담론이며, 일차 이야기이다. 모두가 다섯의 날짜를 기본으로 하여 7개의 시·공간 단위로 나누었다.  
\* 안의 사각형은 일기이고 서술 주체 ‘나’의 의해 기술된 여성 담론으로 8일이 선

된다. A에서는 ‘나’가 텍스트의 총 서술 주체로서, B(일기)에서 몇 가지 모티프를 끌어내어 그것을 주체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가 나아가는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기에 적힌 그녀의 ‘일상’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담론은 옛본 일기의 ‘연애’, ‘술’, ‘음주’ 등 그녀가 벌여 기술했던 사건을 따른다.<sup>12)</sup>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기에 쓴 그녀의 고백은 그(남편)를 향한 말 걸기로서 대화적 관계를 이끌어내며 상호주체적 관계를 만든다. 동시에 일기 자체는 그에 의해서 분절적이고 선택적으로 제시되면서 A와 B가 뒤엎힌다. 따라서 그의 서술 담론과 그녀의 서술 담론은 각각이 일인칭 주체로서 서로를 대화화하면서 양성이 혼재한 구조(A+B)를 생성한다. 일인칭 독백(고백)의 남성담론이거나 여성담론은 서술상황으로도 상호 주체적 입장에서 새로운 성찰의 반성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

택되어 11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a1, a2, a3 - 6월 17일 일기를 3회로 나눈 것 / b - 9월 4일 / c1, c2 - 8월 25일 일기를 2회 / d ... 8월 29일 / e - 9월 16일 / f - 4월 7일 / g - 5월 27일 / h - 9월 말경 / f와 g는 틀의 서술자가 f의 일기에 이어서 g 일기를 연속적으로 읽는 것을 뜻한다.

- 11) 독자인 필자는 틀(액자)의 일인칭 서술자 ‘나’를 독서의 대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로 기표하고, 일기의 서술 주체인 ‘나’ 또한 ‘그녀’로 지칭한다. 한편, 액자와 일기의 주체인 그/그녀는 자신을 일인칭 서술 주체 ‘나’로 기표하면서 상대방을 ‘그녀’/‘그’(‘그이’)라 서술한다. 우리는 이를 수용하여 <빈처>를 논의하는데 따른 혼돈을 줄이기 위하여 대상 인물을 ‘그’와 ‘그녀’로 표기하고, 내용상 두 인물의 관계를 말할 때는 그/그녀를 남편/아내로, 또는 필요에 따라 서술 주체를 드러내어야 할 경우 ‘나’라 기표할 것이다.
- 12) 일기에서 아내의 일탈적 행위를 가름케 하는 애인, 술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남편)는 일기를 넘겨가며 여기저기에서 술에 대한 기술했던 흔적을 찾아 읽는다. 이러한 행위는 현실적으로 가부장적 남편의 일상을 당혹케 하는 불안과 폭력이 함께 하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복합적인 예측과 지배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낸다. 남편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내의 일기를 계속해서 욕망하며 훑쳐 읽는다.

담론의 구별	성 담론	담론의 위치	담론 양식	서술행위 기간	서술한 날짜 수	텍스트 분절
A	남성 담론	밖(액자의 틀)	서사(1인칭 고백)	1개월 (9월 한 달)	5일	7 단락
B	여성 담론	안(내부 이야기)	일기(1인칭 고백)	5개월(4월~9월) 이상	8일	11 단락

표의 아래 두 담론이 이루어 내는 구조 형식은 텍스트 내적인 대화 관계 뿐 아니라 서술상황으로도 두 주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여서 ‘새로운 동일시’를 만들게 한다. <빈처>의 남성 담론에서 그는 아내와 남편의 일상에 대한 회상과, 그녀가 써놓은 일기를 (몰래) 읽음으로써 일기 속의 그녀와 접근, 대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여성 담론은 첫째, 그와의 직접적인 대화, 즉 ‘말’이 아니라 ‘글쓰기’의 대화 방식을 취한다. 글쓰기 방식의 대화는 즉시성이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내밀한, 깊이를 더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일기가 유발하는 소통에의 유혹이다. 그녀는 일기의 물리적 공간화, 즉 ‘위치 지우기[작]’, ‘놓아두기’를 통하여 그와의 우회적인 대화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남성 담론과 여성 담론의 상호성이 두 주체의 차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우회적, 간접적인 소통을 수행한다. 일기의 ‘위치 짓기’는 침묵으로 행하는 여성의 강력한 역동성이다. 이는 텍스트의 구조 형식과 더불어서, 그녀의 일기와 그녀와의 일상적 삶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유, 그리고 그가 일기를 읽고 난 뒤에 나타내는 반응과, 나아가 그 반응에 대한 그녀의 반응인 일기가 가지는 것이 바로 그와 그녀의 우회적인 말 건넌의 전모이다.

<빈처>야말로 직접적인 말하기 대신 글 매개로 한 글쓰기와 글 읽기의 간접적 소통이 말 중심주의에서 소외된 글쓰기의 실현으로서, 주체로 하여금 성찰,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참 말하기’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활동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 볼 때, 남성 담론과 여성 담론이 텍스트에서 함께 쓰이어, 하나의 담론인 동시에 둘인,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서사를 이룬다. 이로써 <빈처>는 페미니즘 소설

의 이상적인 소통의 장이 되는 여성적 글쓰기의 구체적 구현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우회적 소통과 그 의미

언제인가부터 말을 걸기 위한 그녀의 일기가 탁자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라깡의 이야기처럼) 남성 중심으로 동일시된 상징계에서 타자화될 수 없었던 그의 눈과 귀로는 그 일기를 볼 수도, 일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13)</sup> 일기는 다섯 달이나 더 오래전부터서 그렇게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상징계적 시선과 규율과 청음(聽音)으로는, 거기, 아내가 외롭게 침묵으로 외치는 것들을, 볼/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일기는 그들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9월 15일, 처음으로 일기가 그의 시선에 포착된다. 상가(喪家)에서 새벽에 들어와서 정오를 넘긴 시간에 깨어났을 때, 빈 집의 비일상적 시공은 그로 하여금 사물을 일상과 다르게 보이게 한다. 비로소 그가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사물들, 그리고 ‘일기’는 그로 하여금 상징적 규율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기’의 부름에 응하게 하였고, 마침내는 그 스스로가 그들의 삶에서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일기가 표상하는 우회성의 대화나 주체의 극화된 타자화는 새로이 태어나는 그와 그녀, 두 개체를 새롭게 관계 맺

13) 언어로 상징화되는 상징계는 근본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진정한 여성의 언어는 없거나 새로이 만들어 내어야하거나 기존의 언어로서 왜곡된 방법으로 소통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언어를 미처 듣지/읽지 못한다. 그녀의 소통 방식은 남성적 대화의 방식에 익숙하여 자동화된 그에게는 눈에 뜨일 수가 없다. <도둑맞은 편지>에서처럼 왕비가 두어둔 편지를 왕은 볼 수가 없고, 장관이 가진 편지를 경감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귀머거리 남성의 귀에는 언어 주에서 남성으로 말하는 것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엘렌 식수, 앞의 책 114쪽 참고)

게 한다.<sup>14)</sup>

그는 그녀가 쓴/쓰는 일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sup>15)</sup> 그것은 직접적인 소통보다 더 강력한 소통에의 욕구를 부추긴다. 더욱이, 그것은 잠자면서 행하는 유희와 같은 드러나지 않은 소통에의 전략이기도 하다.<sup>16)</sup> 그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법의 일기 ‘놓아두기’는 일상화된 질서에 대한 내적, 심층적 도전이자 미혹이며 불안이 된다. 여기에 그의 일기 읽기는 전적으로 그 자신 지배해오던, 그리고 ‘늘 한편에 내버려 둔’ 자기 소유의 아내가 ‘소유의 절대성(일상)으로부터의 탈출<sup>17)</sup>이라는 충격으로 작용한다.

14) 그는 그녀의 일기를 발견한 날부터 한 달 정도 이야기를 계속해 간다. 초상집에 갔다가 들어와 늦게 일어난 9월 15일 대낮, 그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아내의 일기를 엿보게 된다. 그날 저녁 아내와 더불어 초상집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그녀의 입에서 갑작스레 ‘연애’ 이야기가 나오자 낮에 엿보았던 일기장의 ‘애인’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래서 다음날”(9월 16일) 새벽에 “다시 그녀의 일기장을 훑쳐보”게 되고 일기장을 앞뒤로 뒤지다가 9월 4일자 일기에서 ‘연애’라는 글자를 찾아낸다. 계속해서 8월 25일, 8월 29일자의 일기를 읽고는 잠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그는 그녀를 껴안게 된다.<sup>(174)</sup>

그녀를 껴안은 그날(9월 16일)은 평소보다 이른 귀가로 그녀를 설레게 한다. 그러나 잠시, 그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는 취해서 들어와 잠이 든다. “사흘 나흘 뒤”, 새벽녘에 갈증으로 일어난 그는 다시 식탁에 놓인 일기를 읽는다. 9월 16일자 일기에서 ‘아내가 술을 마시는 사건’을 본 다음, 술 이야기를 찾아 4월 7일, 5월 27일자의 일기를 골라 읽는다. 그 “다음날”(179), “그 뒤로 며칠 동안”(181)에는 일기를 보는 일이 없이 지낸다.

사우(社友) 교양강좌에 그녀가 불참하였던, “그날 밤”(183)에도 자정이 지난 시간, 잠진 문을 따고 들어선 그는 잠든 아내의 일기를 훑쳐본다. “오늘”(9월 말경. 이 날은 아내가 일기를 쓰는 날과 같은 날짜이다)은 날짜만 써 둔 채, 비어있다. 하루 전의 기록으로 짐작되는 빈 칸의 왼쪽 페이지에는 ‘똥을 정답게 본다’는 아내의 글귀’에 산다는 것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생각하며 떠들고 있던 그녀의 일기장을 가만히 덮어준다.

15) 정화열, 『몸의 정치』, 서울 : 민음사, 1999, 108쪽에서 가다머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빈처>는 음성중심의 직접적인 대화보다 문자가 생성하는 우회적 대화가 서사의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소통, 즉 대화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거나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반응을 야기 시키고 그 반응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해석을 다시 해석하게” 한다.

16) 루이스 이리가레, 『사랑의 길』(정소영 역), 서울 : 동문선, 2009, 35쪽

9월 27일자, 아내가 스스로를 ‘독신’이라 하고 또 ‘애인’을 두고 있다고 쓴 일기는 그의 의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둘째 날에도 그것을 9월 4일, 8월 25일, 8월 29일자의 일기에서 찾아 읽는다. 셋째 날에 읽은 일기에서는 ‘술 마시는 아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섯 째 날까지 일기를 읽기를 계속한다. 일기를 읽는 일은 그의 욕망에 따라 그녀의 행위를 선택적으로 쫓아서 찾아 읽는 능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종속적인 접근이 된다. 그가 일기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의 일상에 응해오는 동일시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우회적인 대화·대면을 더욱 깊은 내적 갈등으로 잇는다.<sup>18)</sup> 그의 일기 읽기, 그녀에의 접근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관습화된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되기 위한’ 변화, 변신의 현재적 시간의 의미를 가진다.<sup>19)</sup>

그녀의 일기는 자기 성찰, 응시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기의 극적 공간, 그러나 명백히 사물화한 공간이 아닌, 빈 공간에 비춰 보이는 타자로서의 그녀는 공적 직업을 가진 독신녀이며, 그와는 연애하는 사이이고, 혼자 술 마시는 여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곳에서 그녀의 시선으로 본 그, 곧 타자화 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는 연인이자 그녀가 포기한 남편으로, 소외시켜둔 똥으로, 현실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가상의 공간에 그녀와 함께 산다. 그는 그녀의 시선으로 대상화된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주체로서 당혹해 한다. 그가 일기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불편해지고 동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성찰에 다름 아니다.

17) 엠마누엘 레비나스, 『탈출에 관해서』(김동규 역), 서울 : 지식음만드는지식, 2009, 27쪽

18) 정화열, 앞의 책, 108 쪽. 대화·대면의 갈등은 자신의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반성이란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비판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질문자가 몰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행위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인식의 문제”로 이끈다.

19) 일기는 일상이 극화된 낯 설은 충격의 상상 공간이 된다.

자신은 술을 먹으면서도 아내가 술을 먹는 것은 왜 놀라운 일이 될까. 그는 남성 중심의 상징 질서를 공공(公共)화하려 한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성이 술을 먹지 않은 이가 있으면 “나와 보라 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에게 아내가 애인을 두고, 술을 마시는 일은 상계를 벗어난 일이며 상징 질서를 그르치는 위반의 행위가 된다. 그는 아내의 일기에서 ‘애인’이라는 말과 ‘술’이라는 말을 더 훑어 찾는다. 그것은 금기를 어기고 있는 아내에 대한 당혹감과 자신의 감정의 동요이다. 그의 감정의 흔들림은 그녀의 존재감 이전에 애인과 음주에 대한 진상에 두고 있다. 그에게 변화는 두렵고 불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곧 위기의 담론된다. 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미의 현재적 발화로서, 타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타자에게로 향하는 현재적 발화이기 때문이다.<sup>20)</sup>

### Ⅲ. 상징 질서(규율規律)와 동요(動搖)

아내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설은 시작되고, 그의 반성적 독백은 계속된다.<sup>21)</sup> <빈처>는 그의 주체의 혼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그의 남성 중심의 사고는 오히려 텍스트에서 역(逆)으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녀의 일기를 읽기 이전의 그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양상을 가진다.

20) 류스 이리가라이, 『나, 너, 누리』(박정오 역), 서울 : 동문선, 1996, 11쪽

21) 글쓰기로서의 ‘일기 쓰기’, ‘일기 놓아두기’는 그녀에게 자신을 향한 정체성의 모색이자, 그녀의 삶의 영역, 곧 남성적 상징 질서에의 거부와 탈주라는 의미가 내재한 대화 자체이다. 그녀가 정확히 언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는지, 그 일기를 그렇게 탁자나 책상에 펼쳐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읽은 가장 오랜 날짜의 일기는 그것을 읽기 시작한 날로부터 대략 5개월쯤 전부터이다. 그녀의 일기 쓰기는 그가 그 일기를 읽지 않을 수 없게끔 내적 욕망을 부추기고 동시에 그것을 훑쳐 읽는 행위의 은폐가 그녀에게 말 걸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간접적 소통의 길을 열게 한다.

## 1. 상징적 규율의 남성 세계

상징적 규율의 세계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소망적 세계이면서 동시에 결핍을 부르는 억압과 규율의 세계이다. 남성의 세계도 스스로를 변화하게 하는 까닭이 되는 복종과 저항의 양면이 존재한다.

첫째, 그가 아내의 일기를 발견하기까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권력은 그의 내부에 이미 주어져 행사되어 왔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여성, 아내를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는 확고하고, 특히 재화의 소유는 다른 모든 것의 소유를 가능케 하였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소유와 지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간조건으로 여겨진다. 남성의 세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이의(異議)나 배반이 있을 수 없는 남성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사회 체제로부터 주어진 가부장적 상징 질서(규율)는 존재 이전에 법의 언어로 상징화되어 왔다. 규범과 규율의 상징계에서 ‘일기’로 표상되는 그녀의 일상이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그곳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가 일기를 쓴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163)<sup>22)</sup>이며, 그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169)조차도 의아한 일이 된다.<sup>23)</sup> 그는 그녀가 ‘애인’을 두었다든가 ‘새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로 자신의 “예상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그녀의 속마음”으로 읽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녀가 진짜로 다른 남자와 새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손 치더라도 “살림 사는 아줌마일 뿐인 그녀에게 무슨 기회가 오겠으며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라 여긴다.(170, 171) 결혼은 남성이 여성을 독점 소유하게 됨으로써 여성을 자신에게 예속시켜

22) 본문이나 주석에서나 작품 <빈처>의 본문 인용은 인용문 또는 인용 내용의 뒤에 괄호에 넣고 그 페이지를 밝혀 적는다.

23) 상징계의 언어 체계에 여성적 언어는 숨어 있거나 불완전한 상상적 언어로 존재한다.

더 이상 ‘상대로서의 긴장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을 뜻한다. 그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내를 독립적 존재자로 여기지 않는다. “아내와 길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일도 “꽤 오랜 일이”(169) 될 뿐 아니라, 아내를 더 이상의 설렘과 긴장으로 “똑 바로 쳐다보는 일조차 별로 없다.”(176) ‘마누라’(170), ‘아줌마’(171)라는 아내에 대한 호명은 남성들이 여성을 양성적 존재로서의 동일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대상으로 치부한 증표이기도 하다.

여성은 침묵하고 말을 억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남성 주도의 세계는 여성과는 다른 음운과 어법을 가진 세계이기 때문에 남성의 보편 담론은 그녀의 개인적 담론을 배제시킨다.<sup>24)</sup> “남편과 아내의 판에 박은 대화법”(172)에서도 폭력적 지배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그는 그녀가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미련스럽게 그걸 혼자 했어? 라고만. 만약 그녀가, 그럼 어떡해요 당신도 없는데, 했다면 나는 사람을 좀 쓰지, 했을 거고 그러면 그녀가, 이 사 비용도 빠듯한데 어떻게 사람을 불러요., 라고 항의 했을 거고 나는 그때부터 듣기가 싫어져, 알았어 알았으니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구, 라고 그쯤에서 말을 돌려버렸겠지. 그러면 그녀는 한숨을 쉬 다음 입술을 한번 깨물고 또 어떻게든 꾸려나갔을 것이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판에 박은 대화법이니까.(172) 밑줄-필자

그의 말에서 책임의 방기(放棄)와 소통을 단절 시키고 그리고 그녀의 말을 배제해버리는 가부장적 권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부른다. 9월 16일, 새벽에 지는 아내를 꺼

24) 그는 그녀의 비판적 말에 대해 그녀를 배제한 남성 지배의 보편논리로 말한다. “내 아내나 자식새끼가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는 게 아님은 모든 술꾼들이 다 안다.”(170), “그래, 술 안 마시고는 사회생활이 안 돼. 간암 환자 빼고 그런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180)

안은 바로 그날, 다른 날보다 이른 귀가로 아내로 하여금 “보리 서 말 꿰어준 이웃처럼” 감격하게 만든다. 그는 그것에 스스로 자괴심을 느끼지만 때마침 걸려온 친구 전화를 받고는 그녀의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열한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기분”과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176) 이른 귀가나 새벽녘의 사랑에 대한 시혜자적 느낌은 가당찮은 상호성이다. 남성 중심의 일상화된 억압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볼 수 있게 한다. 주체를 서로가 타자화할 수 없는 데서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강요와 지배의 자기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채우려는 언어의 세계가 된다. 그를 포기했다는 그녀의 일기를 두고도,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 보는 그녀의 일상’을 으레 하는 아줌마들의 하는 즐거움으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생각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들을 드리우게 될 것인지를 그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둘째로, 그렇다고 현실이 그에게 마냥 즐겁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남성 정체성의 다른 하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지배 군림하면서도 그 역시 사회 체제에 매어 규율에 잡혀 살아야 하는 불안과 공포에 억압된 존재라는 사실이다.<sup>25)</sup>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절대적 적대 관계일 수만은 없다. 남성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현실 체제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말은 그 스스로의 말법이라기보다, 현실에서 살아남아 소통하기 위하여 상징 질서를 뒤쫓은 것일 뿐이다.(172) 그것은 이미 있어온, 외부로부터 부여된 상징 질서이다. 그것은 그의 삶을 그 이면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게 한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침윤된 상징 질서는 사회나 가정생활에서 오히려 그가 깊어져야 하는 짐이기도 하다. “사회화 과정을 거칠 때 맨 먼저 대

25) 라깡이 말하는 상징계의 현실은 아버지의 법과 규율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그것은 남성에게도 거세에의 불안과 공포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관건”이 언어이다. 그녀에 대한 그의 억압이나, 남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위상이 개인 스스로가 쟁취하거나 정립한 것이 아니다. “현 가부장적 사회의 언어는 모든 의미화와 관습을 대표하면서,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를 우리에게 주입시킨다.”<sup>26)</sup> 그가 변해(辨解)하고 정당화하려는 행위, 곧 거의 매일 마시는 술, 밤늦은 귀가, 외박(170, 172)은 현대 사회의 남성들에게 관습화된 일상이다.<sup>27)</sup> 영업부 일로 그냥 좀 바쁘다는 것이 “정보도 얻어야 하고 부탁도 해야 하고 친해두어야 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술도 좀 먹고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내밀고 또 가끔씩 매운탕 집에서 화투도 치”는 그런 것들이다.(170) 그는 가장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죽기보다 싫은 일도 도맡아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비록 힘겨운 것이라 하더라도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의 책무라 여긴다. 남성 중심의 일상적 삶은 오히려 그를 ‘위축’케 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시혜자처럼 군림하는 자신을 자조하고, 동창들과의 만나서 사회 현실에 대한 소시민적 비판과 이민의 꿈으로써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기도 한다.(168) 이러한 남성 중심의 규율, 떠맡아야 하는 임무, 그가 애써 구축하는 가정, 집이 도리어 그를 구속케 하는 아이러니가 된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환대의 순간에도 “(집을) 나가니 바람이 시원”(175)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기의 항변에서 남성 중심의 권력을 자신에 반해서 읽어낸 것이다. 사회구성체의 한 존재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당대 사회구성체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를 관습화된 일상의 규율에 순응하여 살아가게 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일상에서 비켜섰을 때, 타자화한 일기는 그에게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 낯선, 여성 담론은 그에게 혼돈과 갈등으로 변명과 반성의 고백을 이끌어 낸다.

26) 정을미, 『새로운 여성의 탄생을 위하여』-L. Irigaray의 차이의 문화-, 『한국 프랑수아학 논집』 제44집, 2003, 345쪽.

27) “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자정이나 새벽 귀가가 습관화되어 있다. 귀가를 않는 때도 종종 있다”(170).

## 2. 상징 질서의 변화와 반성

일기는 극의 무대이자 무대에 걸린 거울이다. 그가 보는 일기는 “비유적으로 과부와 고아의 얼굴”이다. 그것은 그것을 본다는 것의 의미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일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게 한다. “내(그)가 받아들이는 얼굴”, 즉 일기의 말 속에서 “타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노출되며, 그 문제에 답해야 하는 긴박성”이 “나의 책임을 불러일으킨다.”<sup>28)</sup> 먼저 타자의 시선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응시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9월 16일과 9월 4일자 일기에서 읽은 ‘연애’라는 글자는 계속해서 8월 25일, 8월 29일자의 일기를 읽게 한다. 일기를 훑어 읽는다는 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나’가 나의 시선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며, 주체로서의 자아에 훼손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sup>29)</sup> 그리고 또 그녀의 시선은 여기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일깨우게 한다. 주체는 일상의 현실에서 소원화(疎遠化)되고, 소원화된 자신을 타자로서 응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녀가 그를 바라보아 낯설게 된 그를 바라보는 그와, 낯설게 되어 진 자신을 스스로가 타자로서의 응시하는 그, 그는 이 두 개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 일기의 상상공간에서 바라보이는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두 주체의 갈등을 보게 된다. 그는 비로소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일기에는 현실의 상징 질서에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재현된다. 타자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여되어진 상징 질서는 동요되고 주체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 그는, 실제의 남편을 애인으로 가정(假定)해 두고, 스스로를 소박맞았다고 말하고, 또 독신이라 말하는 아내의 불행을 읽는다.(170) 라깡은 “타자에 의해 보여지는(응시되는) 것들이는 주체를 진정한 주체로 보았다.”<sup>30)</sup> 타자의 시선은 여기에 서 있는

28) 변순용, 『타자의 윤리학』, 『레비나스』(베른하르트 타우랙, 변순용 역), 경기: 인간사랑, 226쪽. 레비나스의 얼굴의 대면은 응시에 다름 아니다.

29) 이용은, 『『타이투스 앤드러니쿠스』 - 남성에게 던지는 메두사의 시선, 그리고 응시』, 『Shakespeare Review』, 한국세익스피어학회, 1998. 260쪽

30) 위의 글, 256-257쪽

‘나’라는 존재를 일깨우게 한다.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고통을 맞보게 한 것이다.

그녀의 말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그의 뒤틀린 심기는 그러한 정황과 그 자신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일기를 읽고 난 뒤, 아내가 봐온 시장꺼리를 처음으로 받아드는 엉거주춤 익숙지 않은 행동은 당황스럽고 어색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전에 없이 타자에 대한 동정과 배려와 반성적 시각으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일기를 읽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시장바구니를 들어주기도 하고, 고단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녀의 “이마 위로 부스스” “몇 가닥 내려와 있”는 “머리카락을” “안쓰러움으로” “쏟아 올려”주는가 하면, “스웨터 가슴께에” “허영게 말라붙어” 있는 “밥풀 몇 개”를 처연히 바라보기도 한다. 9월 16일의 이른 귀가를 생색내는 시혜자적 태도를 스스로 응시하고 반성하는 감성의 변화에 그는 계속 심기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상징계의 관습화된 언어에 의지하여서는 더 이상 소통이 가능할 수 없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성찰을 위한 위장이나 변할 수 없는 이의 변해야 하는 시련일 때, 기득권의 포기가 주는 마지막 향의에 지나지 않는 것<sup>31)</sup>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판에 박힌 부부의 대화법’(172)의 되새김은 “관습적인 언어습관을 치워버리면서라도” 그가 “함께 대화하고자”<sup>32)</sup>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고백적 담론에서 회상하고 있는 ‘그

31) 루스 이리가라이(1996), 앞의 책, 10쪽. 정을미(2003)는 ‘여성과 언어’ 항에서 이리가라이의 언어의 성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언어활동을 할 때 남성은 주체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세계나 남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리하여 여성이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성적 정체성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재현 매체가 되는데 익숙하며, 여성 자신의 재현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남성은 세계와 대상과의 관계를 특권화 하는 반면, 여성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 여성이 말을 할 때는 남성보다 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덜 추상적이고 이야기의 맥락을 중요시한다.

32) 정을미(2003), 같은 글. 346-347쪽 참고

녀의 직접적인 항변'은 그에게 강력하고 충격적인 울림을 준다. 그는 존재에 대한 현기의 순간을 체험한다.

그녀는 한참을 그냥 그래도 서 있다. 나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러다가 얼핏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눈에 물기가 비친다. 내 귀에 그녀의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좀 진지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 보내 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갑자기 귀가 다 멎먹하다.(181)

연애시절에는 세 시간이 걸리는 먼 귀가를 함께 하던 그가, 결혼 후에는 그녀를 자신에게 동일시하여버린 것이다. 그녀와의 외출을 영 끊게 된 것이며, “아내를 집 안에 팽개쳐두고 혼자 재미를 본 기분까지”(167) 들 정도가 되게 한 것들이 일기와, 일상에서 지나쳐버릴 수 없는 행위들로 마음에 와 걸려 불편함을 자아낸다. “일기장 속의 그녀에게 화가 나 있”다거나(179) “제기랄”(166), “망할 놈의 일기장”(167)이라는 그의 진술은 자기 정체성의 훼손으로 오는 불편함에 대한 자조와 반성의 반영이다. 타자는 그의 존재에 깊이 울림을 주기 시작한다. 입맛이 쓰다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다거나, 숨쉬가 거북하고 종내에는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게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정한 것”까지도 “귀에 거슬린다.” 변명 비슷한 말을 늘어놓다보니 “마음에 걸리는 게 많”(167)아 진다.

그의 남성 담론은 타자와 자신 사이에 직설적 의문과 설의적 의문으로 끊임없이 되묻게 하며 자기반성을 꾀한다. “내가 나쁜 놈일까”. “밖에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게” 그의 “아내나 자식새끼가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게 아”님은 “모든 술꾼들이 다 안다”는 청자에 대한 항변도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도 그녀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임을 환기시키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더 이상 남성중심의 관습화된 사유나, 상징계의 언어에 기대게 될 때에는 진실에 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동요, 충격은 일상의 너머에 있는 삶의 진정성을 찾게 한다.<sup>33)</sup>

그는 손에 펴들고 있던 그녀의 일기장을 가만히 덮어둔다.(184) 상징 질서나, 상징계의 규범적 세계에 살아진다 하여도 (그 속에서 구체적인 개인이) 살아가는 것은 진지하고, 엄숙한 일이다.

#### IV. 소통과 포월(包越)의 사랑

남성과 여성이 욕망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페미니즘의 이상은 무엇인가. 양성적 존재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로 다른 주체, 즉 타자는 주체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줌으로써 존재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나를 열어준다.”<sup>34)</sup> 이리가레는 “서로 다른 두 주체의 만남은 각자가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sup>35)</sup>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화하려는 생각을 버릴 때, 남성 중심의 동일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때, 초월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말한다.<sup>36)</sup> <빈처>가 이뤄낸 성취는 여성 자신의 글쓰기를 통하여서 존재의 탈출을 꾀한 ‘의식 변화의 현현’이고, 이러한 그녀의 ‘여성-되기’가 일기를 읽는 그를 초대하고

33) 박인철, 『현상학과 탈주체성』, 『인문학 연구』 10,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5, 68쪽. “주체 중심을 벗어나는 현상학이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34) 변순용, 같은 책, 2004, 220쪽

35) 위스 이리가라이(1996), 같은 책, 13쪽

36) A·핑켈크로트, 『사랑의 지혜』(권유선 역), 서울 : 동문선, 1998, 81-82쪽. “사랑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아닌 약함의 시간이다. 간간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소심함, 무력감, 요컨대 애정의 패배, 바로 그것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전투적 이미지에 비추어 본다면 패배는 경멸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현존을 알려준다. 타자의 현현(顯顯)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잃어야 한다. 주도권을 잃는다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어안지도 못하며, 거리를 두지도 못하고, 기존의 인식과 그를 동일시하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사랑이란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는 얼굴, 즉 가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잇을 수도 없는 얼굴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거기에 가두어 둘 수도 없다.”

근접하게 하여 그와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8월 25일 일기에서, 그녀는 자신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깨침을 이렇게 쓰고 있다.

하긴 살뜰하고 다감하여 지겨운 아내, 귀하고 기특해서 조바심 나는 자식들, 남들처럼은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가정사,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집이라는 일상에 갇혀 살기에는 그는 너무나 자유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한다. (173)

일기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남성적 지배의 관념에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초월”을 모색한다. 그것은 억압된 것, 배제된 것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자아를 오히려 살아있는 것, 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sup>37)</sup> 그것은 타자를 장악하는 일이 아닌 풀어놓는 것, 이리가레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해 “땅과 하늘에 자신을 놓아 보내는 것이자 실제로 돌아가는 일”이며, “하나의 전체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새로 지어져야 하고 사유해야 하는 것”이라 했다. 타자를 이해, 파악할 때도 “그 나타남이 이미 확정된 현존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된다.”<sup>38)</sup>

그도 역시, 여성이 여성으로서 지각하는 ‘가장 가까운 현실’인 자신의 육체를 근거로, 스스로를 결핍의 존재로 분리시키고 타자화한 모든 여성에 관한 기존의 규정(담론)을 넘어서 여성의 감각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돌려주는 주체이어야 한다.<sup>39)</sup> 이리가레는 자가-성애(auto-affection), “이것이 없이는 타자를 타자로서 존중할 수 없고 타자도 우리(여성)를

37) 김숙희, 『주체화 과정과 언어의 위기』, 『독일문학』 5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994, 295-296쪽 참고

38) 루스 이리가레(2009), 앞의 책, 166쪽

39) 정을미(2000) 앞의 글, 247쪽, 정을미(2003), 앞의 글, 346쪽 참고. 그녀는 샤휈을 하고 자신의 젖은 맨몸을 거울을 통해 응시한다. 찢꼭지가 세면대에 닿는 이런 감촉이야말로 그동안 죄악시되고 억압되어온 여성 자신의 자기애이며 자기발견의 단초가 된다.

존중할 수 없다.”고 한다. “여성은 항상 다수로 존재하며, 분산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타자가 이미 그녀 안에 있으며 여성은 자기성애의 측면에서 타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sup>40)</sup> 타자를 부정하고 종속시키고자 하거나, 주체가 타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 “억압 받고 배제되어 오던 타자의 발견”이나 극복은 불가능의 영역에 속한다. 남성애의 동일시로서 상징계의 현실에 예측시켜 안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의 상호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 ‘평등’과 ‘다름’의 관계를 지어 만들어가야 한다. 이리가래는 페미니즘의 이상을 중성적 양성이라 말한다. 중성적 양성이란 “통합적이고 차이를 지우는[作] 양성”이 등가관계를 맺으며, 뿐만 아니라 양쪽의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동일성이다.<sup>41)</sup>

비록 남성적 언어의 틀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판에 박은 대화법을 넘어서, 그가 그녀를 훑쳐보게 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우회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녀가 하는 것은 그가 알게 모르게 글을 쓰는 일, 자신을 말하는 일이자, 삶에 대한 기대의 배반과 불안을 견디고 나가는 타자와의 새로운 만남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sup>42)</sup> 그것은 기대의 헛됨이 아니라 내부의 타자와의 소통과 더불어 외부의 타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서로를 향하여 말을 건네는 궁극적으로 타자를 향한 “자폐적 고립”을 여는 소통의 다른 방식이 아니겠는가.

40) 김희영, 『프랑스 페미니즘 문학』, 『프랑스학 연구』 제 27권, 한국프랑스학회, 2003, 71쪽

41)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경기 : 인간사랑, 2001, 96쪽  
윤학로, 『메두사의 웃음』과 여성의 글쓰기, 『프랑스학 연구』 제26권, 한국프랑스학회, 2003, 190쪽. 중성적 양성이란 “남성, 여성 양쪽이 등가관계를 맺으며, 뿐만 아니라 양쪽의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42) 황중연, 앞의 글. 338-341쪽. 공간은 동일성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두 존재 사이에 있는 물리적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가 개방한 개념적인 화합의 공간이다.

일기의 극화된 공간에서도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을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울을 통하여 “내가 내 꼴을 보는” 데는 주체로서의 ‘시선’의 ‘자괴감’이 아니라 ‘응시’로서의 타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울은 타자로서의 자신을 응시하게 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똥을 보고 놀란다. 저 흉칙한 것이 내 몸에서 나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똥은 엄연하다. 우리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참을 보니 신기하게도 저것이 더러운 똥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제 막 굶고 수고로운 일을 마친 가족 같기도 하다. 나는 똥을 자세히 본다. 내 똥을 자세히 보는 나를 거울로 보니 참 정답다.(183)

그녀는 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루한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녀가 타자, 즉 자신의 똥을 보고 ‘더럽지 않다’ 하고, 그러나 똥 자체가 정겹기보다, 그것을 타자화하여 보는, 자신을 거울로 보니 ‘참 정겹다’고 하는 것에서 반성적 자아의 모습을 읽는다. 거울은 자기반성의, 적나라한 공간인 목욕탕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또 다른 타자이다. 거울은 또한 타자의 시선으로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되기에, 주체의 변화를 맞게 되는, 똥을 바라보는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똥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지만 늘 모두의 삶에서 경원시(敬遠示)되어 온 것이다. 그것, ‘내 안에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의 일부로서 존재하였던 타자인 태아’<sup>43)</sup>에 대하여 이를 존재로 의식하고 관용하는 여성의 정체성이 그 더러운 것을 타자의 시선으로 응시함으로써, 마침내는 그것을 자신의 한 몸으로 “엄연한 현실로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고통스러운 것, 불안한 것이었던 것이, 이제 더럽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거나 그 직전까지 가도록’하는, 자세히 보니 정다운 것, 새로운 의미로 ‘되는’ 것이다.<sup>44)</sup> 그것은 흉칙하고 더럽고

43) 정을미(2003), 앞의 글, 337쪽

냄새나는 똥이 아니라 수고로운 일을 마친 가족이자 내 안의 정겨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두 존재자가 다가가고 맞아들이며, 그들의 타자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모아들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삶이다.” 그녀는 타자의 추(醜)를 뛰어넘어서 정다움으로 싸안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는 삶의 엄숙함을 느낀다. 그 역시 그녀의 일기에서 촉발되는 가부장적 보편 규율에서 탈출하는 희생의 통렬한 의식을 습득하게 된다.<sup>44)</sup> 그것은 만남으로서 서로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삶에의 충실이며, 삶 자체가 “조우를 위해 필요한 빛과 밝음”이 된다.

“나는 손에 펴들고 있던 그녀의 일기장을 가만히 덮어준다. 살아가는 것은, 진지한 일이다. 비록 모양들 안에서 똑같은 얼음으로 얼려진다 해도 그렇다, 살아가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184)

## V. 마무리

<빈처>(1992)는 작가의 글쓰기 전략에서 정체성 추구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을 부정하고 이를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할 페미니즘의 이상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를 다음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빈처>는 텍스트의 총 서술자인 그가 아내의 일기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의 반성적 독백이 이어진다. 교호적 구조의 <빈처>는 액자의 남성 담론과 내부의 여성 담론이 서로가 주체가

44) 이용은, 앞의 글, 257쪽 참고. 여성 주체로서의 대(對) 남성적 태도는 가부장제하에서 남성에 동일시됨으로써 주체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지만, 남성에 대한 저항적 태도로서의 여성 주체가 남성에 대한 양성적 입장과 복수성으로서의 중립적 태도로 남성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주체를 획득하게 된다.

45) 엠마누엘 레비나스(2009), 앞의 책, 27쪽

되는, 그래서 그 각각이 주체 ‘나’이고 대상적 존재로서의 상대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의 실천으로, 동시에 형식과 내용(주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그의 서술과 그녀의 서술이 각각 일인칭 주체로서 서로를 대상화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동시에 하나가 둘이 되는 혼성, 양성이 혼재한 구조를 생성한다.

둘째, 그가 그녀의 일기를 훔쳐 읽는다는 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나’가 시선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며, 주체로서의 현실 자아에 훼손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빈처>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아, 낯설게 된, 그를 바라보는 주체(그)와, 낯설게 되어 진 자신을 스스로가 타자로서의 응시하는 두 개의 시선을 가진다. ‘일기’는 규율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로 하여금 ‘일기’의 부름에 응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스스로가 그들의 삶에서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셋째, <빈처>의 남성 담론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 하는 일상에 대한 회상과 일기에 써놓은 그녀에 대하여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일상에서 겪는 그녀와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과, 둘째, 그녀가 써놓은 일기를 (몰래) 읽음으로써 일기 속의 그녀와 대화하는 것으로서의 사유이다. 반면에 여성 담론은 첫째, 그와의 대화가 ‘말이 아니라 글쓰기’의 대화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녀는 일기의 물리적 공간화, 즉 ‘놓아두기’를 통하여 그와의 우회적인 대화를 이끌어 낸다. 두 개의 담론과 그 담론 주체들의 상호성이 차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소통을 수행한다. 일기는 그의 일상, 가부장의 보편화된 세계를 뒤흔들며 그를 혼미한 가운데로 이끈다. 이러한 동요, 충격은 일상의 너머에 있는 삶의 진정성을 찾게 한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전에 없이 타자에 대한 동정과 배려와 반성적 시각으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빈처>가 페미니즘소설로서 이룬 성취는 여성 자신의 글쓰기를 통하여 존재의 탈출을 꾀한 의식의 변화가 현현되고, 이러한 그녀의 여성-되

기가 일기를 읽는 그를 초대하고 근접하게 하여 그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타자의 추(醜)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정다움으로 싸안고,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는 삶의 엄숙함을 느낀다. 그 역시 그녀의 일기에서 촉발되는 가부장적 보편 규율에서 탈출하는 희생의 통렬한 의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것은 만남으로서 서로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삶의 충실이며, 삶 자체가 조우를 위해 필요한 빛과 밝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은희경, 《타인에게 말걸기》, 서울 : 문학동네, 1996.
- ,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
- 김숙희, 「주체화 과정과 언어의 위기」, 『독일문학』 5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994, 295-296쪽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경기 : 인간사랑, 2001, 96쪽
- 김은하, 「90년대 여성소설의 세 가지 유형」, 『창작과비평』 제27권 제4호 (통권 106호), 창작과비평사, 1999, 255쪽
- 김희영, 「프랑스 페미니즘 문학」-차이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프랑스학』 제27집, 한국프랑스학회, 2003, 71쪽
- 박현이,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고백의 서술전략 연구」, 『비평문학』 비평문학회, 2004, 174쪽
- 방민호, 「가족이 지배하는 세계의 ‘농담’과 ‘연민」,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창작과비평사, 1999, 295쪽
- 박인철, 「현상학과 탈주체성」, 『인문학 연구』 10,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5, 68쪽
- 변순용, 「타자의 윤리학」, 『레비나스』(베른하르트 타우레, 변순용 역), 경기 : 인간사랑, 2004, 220, 226쪽
- 윤학로, 「『메두사의 웃음』과 여성의 글쓰기」, 『프랑스학연구』 제26권, 프랑스문화학회, 2003, 190쪽
- 이선옥·김은하,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 『민족문학사연구』 제11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59쪽
- 이용은, 「『타이투스 앤드러니커스』 - 남성에게 던지는 메두사의 시선, 그리고 응시」, 『Shakespeare Review』, 한국셰익스피어학회, 1998, 257, 260쪽

- 정을미, 『엘렌 식수스의 ‘여성적 글쓰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9집, 한국프랑스학회, 2000, 247쪽
- \_\_\_\_\_, 『새로운 여성의 탄생을 위하여』-루스 이리가레의 차이의 문화-,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4집, 한국프랑스학회, 2003, 344, 346-347쪽 참고
- 정화열, 『몸의 정치』, 서울:민음사, 1999, 108쪽
- 황종연, 『나르시즘과 사랑의 탈낭만화』, 『타인에게 말걸기』, 서울 : 문학동네, 1996, 341, 338-341쪽
- 뤼스 이리가라이, 『나, 너, 누리』(박정오 역), 서울 : 동문선, 1996, 10, 11, 13쪽
- \_\_\_\_\_, 『사랑의 길』(정소영 역), 동문선, 2009, 35, 166쪽
- 들뢰즈·가타리,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카프카론』(조한경 역),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2, 61쪽
- A·핑켈크로트, 『사랑의 지혜』(권유선 역), 서울 : 동문선, 1998, 81-82쪽
-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박혜영 역), 서울 : 동문선, 2004, .114쪽
- 엠마누엘 레비나스, 『탈출에 관해서』(김동규 역), 서울 : 지식올만드는지식, 2009, 27쪽

<Abstract>

A Study of Eun Hee-gung's "A Poor Wife"(<빈처>)  
- From a Feminist Viewpoint

Myung, Hyung-Dae

*A Poor Wife* starts with the main character secretly reading his wife's diary. In this work, the form and the subject are in harmony using the cross structure. Both the male-discourse and the female-discourse are the subjects, and each discourse becomes the subject 'I', while at the same time, becoming the other as an object.

Reading her diary results in the husband having two perspectives: one, seeing himself through her eyes as the subject and the other, viewing himself as the object through self-reflection.

In the male discourse, the main character is confronted with two opposing representations of his wife. The first is how he knows her in their daily lives while the second is what he learns about her through her diary.

In the female discourse, communication is both direct and indirect. First, it is direct in that she writes and he reads. It is indirect in that she communicates her desire for him to know her thoughts by leaving her diary where he can easily find it. She invites him to read it. This takes him from his stable and routine world to her chaotic emotional world. The shock and anxiety helps him find truth beyond his everyday life. Through this forced self-reflection, the husband develops an attitude of care, sy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The wife takes control of communication using her diary as a vehicle to convey her thoughts and feelings to her husband, thereby, resulting in his becoming a better person.

Key Words : the male discourse, the female-discourse, gaze, feminist,  
A Poor Wife, Eun Hee-gung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